



# 정교회 주보



성 니코데모스 순교자

## 마태오 제 3주일

성 에피미아 대순교자, 성 소프로니오스 수도사제  
제 2조,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2조 부활찬양송 / 81, A 212

•주일 입당송 / 14, A 42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A 226

•사도경 : II고린토 6:1~10 / 봉독서 257

•복음경 : 마태오 6:22~33 / 109, B 3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교회의 기혼 성인들



### 성 니코데모스 순교자

성 니코데모스는 그리스 북쪽지역인 엘바산 출신으로 경건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어 그리스도인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터키인들에게 동요되어 무슬림이 되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아토스 산으로 피신해서 숨어있던 자신의 한 아이를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 데려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찾아 아토스 산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속을 떠나 그곳에 머물렀으며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으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순교의 갈망이 있었던 그는 금욕생활과 많은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아토스 산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엘바산으로 가는 동안 금식과 절제를 하였습니다. 엘바산에 도착한 그는 터키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터키인들의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 결과 사나운 군중들에게 넘겨져 3일 동안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의 장소로 옮겨진 그는 기도를 드린 후 1722년 7월 11일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한 그의 시신을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성모님 성당에 모셨고, 그의 성유해는 기적을 일으키고 향유를 뿜어냈습니다. 성유해의 일부는 아토스 산의 성안나 스키티에 보전되어 있습니다.

## 자기 비움과 증언!

사도들의 위대한 자기희생, 복음말씀의 은총을 위한 자기 비움, 그들의 모본의 힘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교회의 증언을 전승하여 하느님의 왕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의를 갖도록 영감을 주어야만 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거룩한 사도들이 복음말씀을 전파하며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 궤상을 향한 복음말씀의 설교와 같은 위대한 사업을 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들은 엄청납니다. 매 걸음마다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모든 길들이 바위들로 가득 찼고, 벼랑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모든 집들과 항구들은 사도들에게 적대적이었고,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귀는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틀과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방해물을 극복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적들의 방어를 무력화하였고, 온 세상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셀 수 없는 위험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이러한 경이적인 업적들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28:20)라고 말씀하신 주



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의 방해물들을 사라지게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비움과 증언, 이 두 단어는 그리스도교적 희생과 제공의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을 양심의 순교자로서 고통을 겪고 피 흘리는 고통을 겪으며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은 “옥좌와 어린 양 앞에서 있는 그 수효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중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요한묵시록7:9 참조)을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들에게 희생 없이, 수고와 땀 흘림 없이는 절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 악마 대장의 충고



(1941년 C. S. 루이스[1898-1963, 영국의 작가]가 쓴 책에서 옮김)

젊은 악마: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나요?

악마 대장: 두려움을 이용해서지!

젊은 악마: 잘 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전쟁? 굶주림?

악마 대장: 아니, ...질병을 두려워하지!

젊은 악마: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죽고 하지 않았나요? 치료약이 없나요?

악마 대장: 오, 그래... 사람들은 병들고는 죽었지. 치료약이 있긴 했는데...

젊은 악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악마 대장: 음,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생명이라고 굳게 믿었었지!!!

그래서 그들은 서로 껴안는 것, 서로 인사하는 것을 멈췄지!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포기한 거야... 그들은 돈이 다 떨어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은 직장도 잃었지. 하지만 그들은 먹을 빵이 없을지라도 자기들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 그들은 들려오는 모든 것을 믿었어.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듣고는 무조건 다 믿었지.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한 거야. 자기들 집을 다시는 떠나지 않았지.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심지어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중단

했지. 친구나 친척들도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어. 온 세상이 자발적인 재소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지워진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비참한 날에 생존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은 실제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었던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의 가엾은 영혼을 낚아채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지...

(덧붙이는 말: 이 책은 1941년에 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타나시아



대교구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설교말씀의 한 부분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께서는 사도들 축일을 맞이하여 콘스탄티노플의 페리키이의 사도들 성당에서 설교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세상적인 권력은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교회 추종자들의 무리나, 물질적 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권력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도 춘천에서의 여름 영어캠프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지역성당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2~24일 부산 성모희보 성당

7월 23~25일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7월 30~8월 1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인천 성 바울로 성당

8월 13~15일 전주 성모안식 성당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 유익을 위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에 대한 밤 10시 기도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정교회 각 지역성당에서 예배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신자들은 매일 밤 10시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기도를 드리는 캠페인을 코로나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10시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빨리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